충북조경건설을 찾아서...

청풍명월의 고장 이름 그대로 공기 맑고 풍광 좋은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청주시와 청원군에 자리한 우리 조경수협회 충북도지회 홍성래 지회장의 충북조경건설을 찾았다.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홍성래 | 충북조경건설 대표

수름재 삼거리

홍성래 지회장의 충북조경건설은 청주시의 북동쪽 외곽 충주방향과 진천방향의 갈림길인 청원군 과의 접경지역 주성동에 이름도 특이한 수름재 삼거리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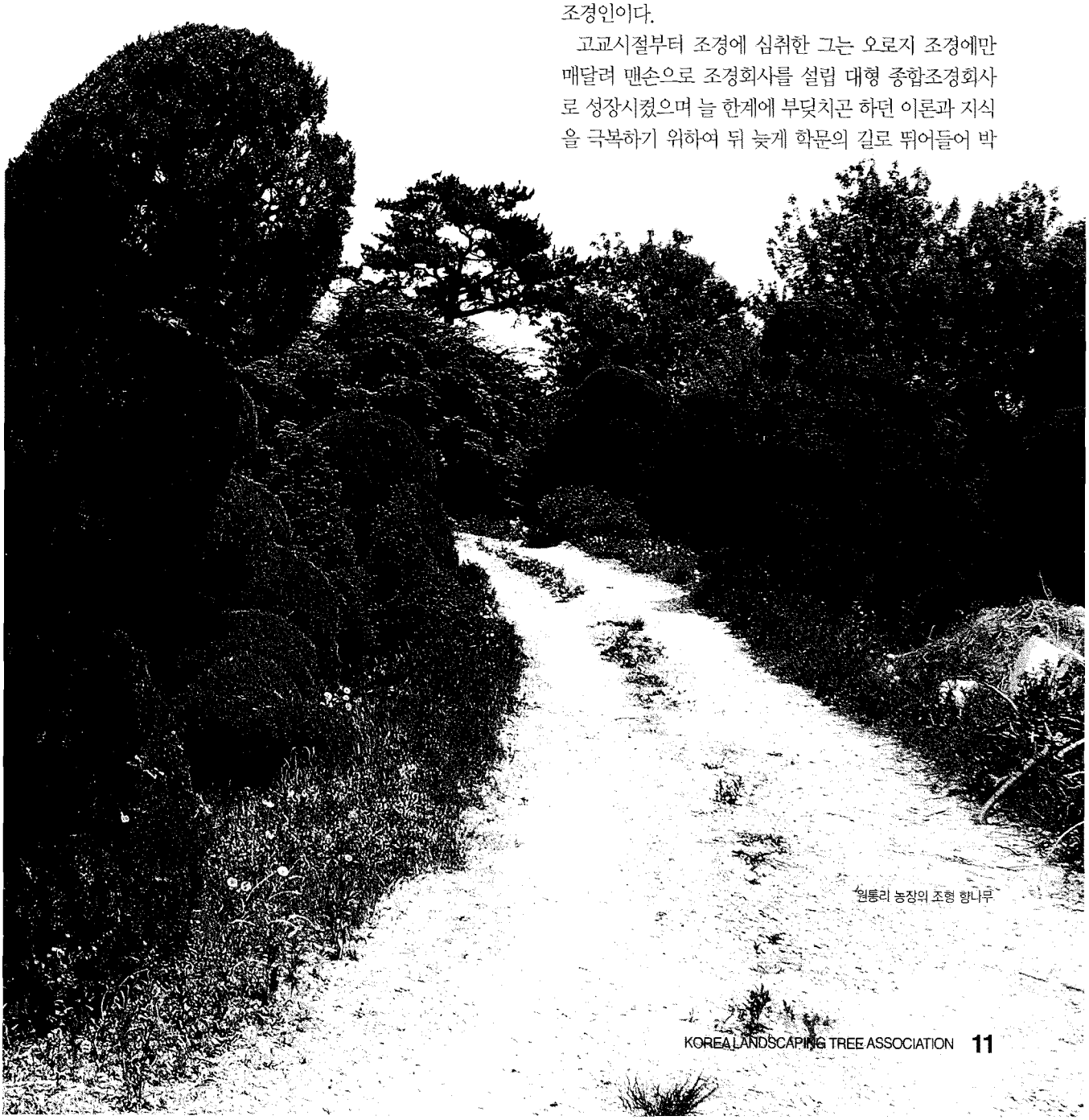
특이한 지명에 따른 유래나 전설도 없어 이름 뜻대로 옛날 술집이 많았거나, 높은 수리봉, 또는 쉬어가는 고개가 아닌가 짐작 할 뿐이란다. 지금은 몇안되는 식당과 상가 간판만이 이곳이 수름재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전에는 제법 높은 고개였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4차선 국도의 편편한 길로 고개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주변도 별로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지역으로 삼거리 남측 도로변에서 30~40m 정도 골목 안에 자리한 충북조경은 500여 평의 대지에 아담한 2층 건물과 잘 가꾼 정원이 조경회사의 풍미를 더 한다.

조경학 전공한 박사 경영인

그는 금년 봄학기 청주대학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업과 학문을 모두 성취한 조경인이다.

고교시절부터 조경에 심취한 그는 오로지 조경에만 매달려 맨손으로 조경회사를 설립 대형 종합조경회사로 성장시켰으며 늘 한계에 부딪치곤 하던 이론과 지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뒤 늦게 학문의 길로 뛰어들어 박



원통리 농장의 조형 향나무

호중리 농장의 메타세콰이아

사학위까지 취득한 그의 의지와 노력은 굳이 조경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 승리의 표상이 될 수 있다.

조립식 무허가 건물에서 시작한 조경업

그는 청주시내에서 동쪽으로 20여km 떨어진 미원면 화창리의 시골 농가에서 5남매 중 막내로 1961년에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청주시내로 유학하여 청주농고를 거쳐 멀리 충남의 예산농업전문대 원예과를 졸업 이때 조경에 심취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군 제대후 민간 조경회사에서 2년간 일한 경험만 가지고 1988년 3월1일 자본금 270만원을 들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청주시내 봉명동 510번지의 무허가 건물에 충북조경 사무실을 차려 조경업을 시작 하였단다.

결혼 약속으로 이룩한 조경업

그가 조경업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결혼하기 위해 약속했던 것을 실천한 결과다.

아내에게 결혼의 조건으로 하였던 약속을 실천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의 충북조경을 이룩하였다.

결혼당시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남자들이 몇이나 될까? 결혼 하고나면 그야말로 헛 약속이 되거나 아예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조차 잃어버리기 일쑤 인데 그는 당시 결혼의 조건으로 "지금은 초라하지만 장차 조경업으로 성공, 10만 평의 조경수 농장과 커다란 빌딩을 마련해 주겠다던" 그 약속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의지를 꺾지 않고 그대로 실천한 참되고, 성실한 의지의 조경인으로 성공하였다.

조경으로 맺은 인연

그들 부부는 둘 다 대학 조경학과를 나와 조경기사 자격을 획득한 조경 전문인이다.

인연이 되려고 해서인가 군 제대 후 1년 정도 되였던 그와 대학을 갓 나온 아내가 취업 한 곳이 두 회사가 한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 청주시내의 개인 조경회사로 두 사람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 하게 된다.

같이 일하면서 자연히 일 잘하고 깔끔했던 청주대학 조경학과 출신의 아내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전문대 출

신인 그는 학력도 차이가 나고 집안 형편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데다 더구나 아내는 더 좋은 곳을 찾아 서울의 큰 회사로 가버리고 나니 애가 타던 그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듯한 "조경업으로 성공하여 10만 평의 대 면적 농장과 커다란 빌딩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결혼에 성공, 지금 지금 정말로 꿈만 같이 그대로 이룩하였으며, 그들이 다니던 회사 역시 승승장구 우리 조경수협회 전임과 전전임 도지회장을 역임한 충북의 핵심 조경인들로 3대에 걸쳐 도지회장을 맡아 지금도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석성리 농장의 이팝나무

가정집 정원공사로 시작 한 조경업

1988년 결혼도 하고 조경업도 시작한 그는 경험도 실적도 없는 터라 커다란 조경공사는 생각도 않고 주로 가정집 단독 주택의 조그마한 조경부터 시작 하였다.

워낙 성실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또한 저렴하면서 새로운 디자인 감각을 동원하여 설계 시공하므로 어느새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젊은 부부가 정원공사를 잘 하더라는 입소문이 퍼져 많은 주문이 밀려들고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못가보고 사무실에 나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미적 감각을 살린 조경 설계를 하였던 아내 덕분에 사업은 커져가고 특히 LG화학(구 럭키화학) 청주공장 신축 조경에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많은 조경수를 납품하고 조경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청원군 지역 사방에 분산된 농장들

그의 농장은 한군데 펼쳐진 대형 농장이 없다.

처음부터 조경수 하나 없이 시공부터 시작한 그는 자기소유의 조경수들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고 10만평 농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여 초기에는 우선 남의 토지를 빌려 묘목을 재배하다 1991년부터 토지를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 우선 저렴한 땅을 찾다보니 자투리 국유림 매각 필지나 산간오지 땅으로 자연히 사방에 분산 될 수밖에 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원군 북쪽에 있는 오창면과 내수읍 지역, 서쪽의 옥산면, 남쪽의 남이면 지역에 크고 작은 농장들이 흩어져 있다.

석성리 농장의 단풍나무

주중동 농장의 오엽송

원통리 농장의 소나무

원통리 농장의 홍성래 지회장

석성리와 원통리 농장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청원군 북동쪽 증평군과의 경계지역인 중부고속도로 증평IC 인근의 내수읍 석성리와 원통리 농장이다.

두 곳 모두 18,000평 정도의 그리 넓지 않은 농장으로 야트막한 야산에 자리한 농장으로 충북 조경의 주력 농장이다.

1994년부터 조성한 원통리 농장의 나무들은 특별 한 수종이 아닌 일반 대중적인 조경수인 소나무 · 향나무 · 전나무 · 느티나무 · 단풍나무 · 메타세콰이어 · 은행나무들이 주종을 이루며 30여종 6,000여 본의 중 · 대형 조경수들이 이제 제대로의 모양을 갖춰 한창 자라고 있는 농장으로 유난히도 봄추위가 심했던 해이지만 하나같이 싱싱한 잎을 펼쳐내고 있고 90년대 말에 시작한 석성리 농장역시 비등한 종류의 비교적 어린 소경목과 중경목 30여 수종 5,000여 본이 심겨진 농장은 아직 제대로 모형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무 가꾸기에는 최적의 농장이란다.

유명 약수의 고장 최적의 농장

이곳 농장이 자리한 청원군의 북부와 동부지역은 옛날부터 약수터로 유명한 고장이다.

세계3대 광천수의 하나로 꼽힌다는 초정약수. 600년 전에 개발되어 세종대왕의 눈병과 세조 임금의 악성 피부병을 고쳤다는 일화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약수를 비롯하여 부강약수와 명암약수 등 이 지방은 땅만 파면 약수가 나온다는, 그래서 근래에는 난개발로 인한 약수 고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그 덕인가 이곳 농장들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받지 않고 지하 20여m 까지 파내려 가도 돌 하나 없는 사질의 황토 지역으로 나무 도잘자라고 특히 분 뜨기에 적합하여 조경수 재배지로는 최적의 장소란다.

석성리 농장의 소나무

석성리 농장의 칠엽수

석성리 농장의 홍성래 지회장

가좌리 농장의 왕벚나무와 매실나무

오지를 옥토로 개발

충북조경 사무실에서 청주시내를 관통하여 서쪽 끝 옥산면 호죽리와 남쪽의 남이면 가좌리는 20여km 거리에 위치한 오지에 있는 임야로 진입로조차 없어 조경수 재배로는 부적합한 산을 구입 갖은 애로와 역경을 무릅쓰고 넓은 농장을 갖겠다는 꿈과 아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물나는 노력을 한 덕분에 이제는 훌륭한 농장으로 탈바꿈 시켰으며 특히 가좌리 농장에는 매실나무와 살구나무. 왕벚나무를 단지화하여 봄이면 온 골짜기가 화려한 꽃 대궐을 이루고 여름이면 매실과 살구를 누구나 채취하게 하고 농기계 하나 들어가지 못하던 오지에 농로를 개설해 주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니 누구나가 칭찬하는 조경인이 되었다.

못다 이룬 꿈 학업에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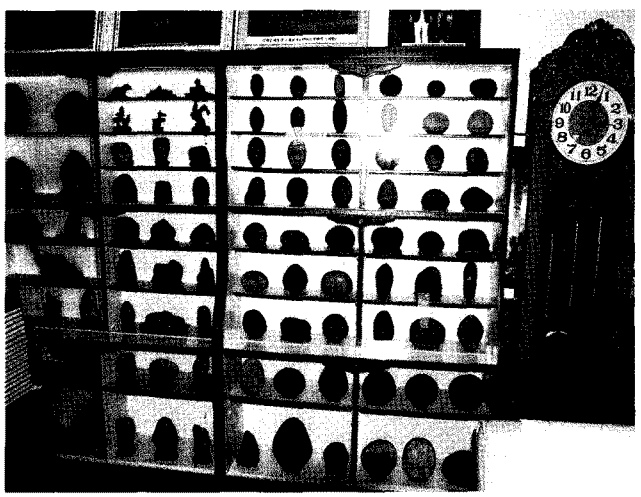
그는 청주지역 조경인들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일찍 법인화를 시작 하였다.
1998년 국토개발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충북조경을 주식회사로 법인화 하고 조경공사업과 토목공사

업, 조경식재와 시설물 공사업 면허를 받아 명실상부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조경인의 반열에 올랐으나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숙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절감하던 터에 아내와의 처음 약속하였던 대형 빌딩을 청주대학 앞 요지에 건평 1,000평에 7층짜리 건물을 신축 한 후 그는 중부대학 환경조경학과에 편입, 학문하는 조경인의 길로 들어선다.

조경수 분뜨기와 아파트 외부공간의 특성 연구

청주대학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우선 석사 과정은 조경공사에서 항상 부딪치는 조경수 뿌리분의 크기와 이식 활착율과 인력, 자금의 소요 등을 연구 하였으며 박사 과정은 건설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80년대의 도입단계 90년대의 발전단계 99년 이후의 성숙단계로 구분 연구하여 과거에는 실내 마감재의 고급화에 따라 아파트 위상이 갈렸으나 이제는 외부 환경의 고급화에 따라 위상이 변하는 것을 연구 예전에는 건물에만 주력하고 외부조경은 규정만 이행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조경수 하나도 수억 원을 들

원통리 농장의 전경



수집한 수석들

여 명품나무를 심고 아름답고 친근하며 청결하고 배치가 잘되어 걷고 싶은 외부 공간을 중시하는 추세로 되어 간다는 것을 폭 넓게 연구 금년 봄학기에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이제는 조경 지식과 경험과 시공에 필요한 조경수와 기술자를 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충북 조경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그는 처음부터 조경설계와 시공에 주력 하였다.

지금 10만여 평의 조경수 농장에 100여종 넘는 조경수 20만본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외부 판매는 전혀 하지 않고 자체 시공 사업에만 사용 하였단다. 그러자니 자연히 밀식되거나 수종별 집단화가 되지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뽑아 쓰고 그 자리는 다른 수종을 심어 혼재된 지역이 많고 제때 출하되지 못한 수종들은 웃자라서 조경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공만은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라는 기업 이념으로 시행하여 대표적인 공사로 충청지역의 주공 아파트와 우림아파트 조경시설과 서원대학교과 청주교대. 대청댐. 오창과학단지 조경 등 많은 지역 조경에 찬사를 받고 있으며 270만 원의 자본으로 두 내외가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20명이 넘는 직원에 연간 70~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충북 굴지의 조경회사로 성장 하였다.

조경업 발전과 보급에 헌신

그는 2009년부터 우리 조경수협회 충북지회장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에 회원으로 가입한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 협회 발전에 노력해 왔으며 그에게 도지회장을 물려준 전임 지회장은 그가 처음 조경업에 몸담아 아내와 함께 근무했던 우림조경의 신현옥 사장이며 같은 사무실의 아내가 근무했던 새한조경의 유명수 사장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도지회장을 맡아오다 신현옥 사장에게 인계한 전 전임 지회장으로 우연치 않게

사무실의 홍성래 지회장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3대에 걸쳐 지회장을 맡게 되었고 이제 그는 아직도 젊은 패기를 앞세워 전임 지회장들에 누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도 그는 시간만 되면 모교인 청주농고에 들러 후배들에게 조경업의 발전 전망과 장래 유망 직종임을 강의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정 참된 봉사

결혼식 때 아내에게 한 약속을 어김없이 실천 하고 이행해온 가장.

지금의 조경인으로 성공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내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한다.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며 항상 희망을 북돋아 준 아내 박향우(48세)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란다. 또한 잘 커준 두 딸과 막내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여러 형제간에도 우의가 돈독하기로 소문난 집안으로 수석수집과 골프가 취미인 그는 착실한 불교신자로 한국어린이재단에 10년째 기부하고 건양대학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청주JC 회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청주 한벌라이온스 회장에 새로 취임하는 등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망 받는 인물로 정계로 나아가 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많이 받지만 그냥 지금처럼 배우고 가르치며 학문하는 조경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석성리 농장의 전경